

## 간호학생들의 보건소 방문간호 실습 경험\*

오진주\*\*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간호대학의 교육목표는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자질과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간호학은 다양한 실습영역을 구성하게 되며, 이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보건소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공조직으로서 간호학생들의 중요한 실습 장소로 기능해왔다. 보건소 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은 방문간호를 경험하게된다. 방문간호사업의 목적은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질병의 이환 감소, 조기사망 감소, 건강수준 향상 등의 효과로도모할 수 있다. 방문보건사업은 미국, 일본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Yoon & Park, 1996).

간호는 실용학문이므로 이론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간호교육의 교과과정에서 실습은 상당히 많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습은 학생들의 간호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며(Seo, Kim & Chon, 1966) 이는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경험 연구는 주로 임상 과목에 치중되어 있고(Lee, 2001; Shin, 1996; Park & Kim, 2000),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학교실습 경험 연구(Woo & Park, 1995)만이 있는 정도이다. 간호학

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많이 제시된다. 간호사의 역할모델 부재, 비교육적 실습환경, 지식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피로감(Seo 등, 1996), 생소한 환경에 따른 긴장감, 지식과 기술의 실제 적용의 어려움, 대인관계 형성, 기대와 현실 차이에 따른 실망 등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경험(Ko & Kim, 1994; Moon, 1998; Seo 등, 1996; Mahat, 1996) 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소 방문보건 실습은 병원실습과는 달리 외부기관에서 행해지며, 특히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Sobol, 1978). 실습 관련 연구는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실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나(Shin, 1996) 특히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사회 실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학생들의 방문간호 실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즉 간호학생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를 제공하는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소 방문간호 실습 현장에서의 간호학생들의 체험을 탐색하여 그들의 체험을 이해하고 앞으로 교과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실무가 확대되고, 특히 가정간호나 가족간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될 것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질적 간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생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겪는 특수한 경험을 분석하여 그들이 무엇에 고무되는지, 혹은 문제로 생각하는지 등의 요인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교육의 기

\* 본 연구는 200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교신처자 E-mail: jinjoo@dankook.ac.kr)

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겪는 독특한 경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참여자가 서술한 경험을 분석하여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참여자의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방문간호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무엇이 간호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어떤 요인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는지 발견함으로써 지역사회 간호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방문간호 실습 경험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간호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실습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방문간호 실습과정에서 겪은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적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중소도시에 소재한 두 개 대학에서 보건소 실습을 마친 간호학생이다. 연구대상자들은 3학년으로서 2주 과정의 보건소 실습 중 방문간호 경험을 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자로 하였다.

### 3)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처음 면담질문은 "실습학생으로서 처음 가정방문한 때부터 방문한 후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시오"라는 서술적 질문을 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진술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하여 자료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면담의 진행을 위해 포함된 개방형 질문으로는 처음 방문시의

생각, 대상자에 대한 느낌, 방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실습 후의 느낌 등이 어떠하였는가였다.

### 4) 자료분석 방법

현상학적 방법은 다양하나(Omery, 1983) 일반적인 틀은 3가지 단계로 요약된다. 즉,

- 1) 특수한 현상의 탐구
- 2) 일반적인 본질의 탐구
- 3) 본질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첫째, 학생들의 진술이나 혹은 문자화된 내용을 듣거나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얻었으며, 다시 결과를 요약하면서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진술로부터 의미있는 문장과 구절들을 추출하였다. 셋째, 추출된 문장과 구절들로부터 의미가 담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구성하였다. 넷째, 구성된 의미를 주제모음으로 분류하여 조직하고, 구성된 주제모음들을 포괄적으로 설명, 기술을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연구자는 2명의 참여자를 통해 주제모음들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II. 연구 결과

원자료를 수 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있는 말과 구절,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면서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직관과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원자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연구대상자의 의도를 일반적인 언어로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논의하면서 주요 진술들을 추출한 후 과학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와 주제를 형성하였다. <Table 1>은 주요 진술과 그에 상응하여 연구자가 형성한 의미의 예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만을 추출하면서 같은 종류의 의미끼리 모았으며, 더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조직된 주제모음을 형성하였다. 간호학생들의 방문간호 경험 분석은 크게 방문 시작 및 대상자와의 첫 접촉단계, 방문간호 사업 경험, 실습에서의 개인적 체험과 정서 등으로 나누어졌다.

### 1. 방문시작 및 대상자와의 첫 접촉

학생들은 가정방문 시작 시기에 떨림, 두려움 혹은 걱정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대상자를 만난 간호학생들은 그들의 열악한 환경과, 소외감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었음을 깨닫는다. 대상자들에 대해 간호학생들은 답답함, 가없음, 착잡함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편 잘못된 선입견도 버리는 계기가 된다.

주제모음1: 기대와 불안으로 시작된 방문간호

학생들은 떨림, 두려움 혹은 걱정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정방문을 시작하였다.

먼저 학생들은 새로운 대상자들을 만난다는 것, 어색할 것 같은 예감, 더럽거나 냄새에 대한 걱정 등 온갖 생각이 다 교차한다.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에게 괜한 누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고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선입견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냥등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제가 낮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더럽거나 냄새나면 어쩌지? 변변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더라고요.”

“노인을 대항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장애인이거나 병에 걸린 사냥들 근처에 가면 무섭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 옮길 것 같고 징그럽고.. 저 정도 옆으로 비켜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걱정들이 속직히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들은 기대감도 경험한다. 기대감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 꿈꿔왔던 봉사에 대한 기대, 병원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렘 등에서 온다.

“드러마나 TV에서 본 그런 생활이 어떠한지.. 이제 정말 본다 그런 생각에 마음 한쪽은 들뜨기도 하고..”

“병원과는 좀 다른 기대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많이 설레기도 하고...”

“전에 텔레비전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저도 봉사하고 싶어 간호학과에 왔고요. 이제 기회가 왔구나 싶고.. 마음 설레었어요.”

주제모음2. 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간호학생들은 대상자를 만나면서 그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또한 인간애에 메말라있는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그런 대상자들이 바로 이웃이었다는 것에 놀라워한다. 그러한 대상자에 대해 간호학생들은 답답함, 가없음, 착잡함 등의 감정을 가지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견도 버리는 계기를 갖게 된다.

대상자들의 물리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어떤 집은 거의 기울어져 가는 집이다 불이라도 나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방은 얼음장같다. 위생상태도 엉망이어서 신을 신고 있어도 발을 딛고 있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하거나 혹은 쿼퀴한 냄새에 저절로 코를 틀어막고 싶은 정도이다.

“부인라 자식이 정신치체이고 낡편은 척추를 다쳐 못 움직이고. 집은 거의 기울어져 가는 집이고요.”

“도저히 사냥이 사는 곳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해도 될래나.. 무슨 개집 같더라고요.”

“연탕가는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가스중독도 걱정되고, 게다가 향머기가 문도 불편하고, 힘도 높은 분이...”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현실을 절감한다. 또한 대상자들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취약하여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었고 소외 그 자체였다. 하나같이 도움이 필요했고 그렇기에 손 한번 잡아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 없고 가끔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갑게 반길 정도로 사람을 그리워하는 분들이다.

“TV 로 보는 건 걸썩 보는거죠... 모두 인간애라고나 할까.. 그런 거에 메말라 있었고 손 한번 잡아주는걸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말 할 상대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자식들이 다 자기들 살기에 바빠 찾아오지 않고... 저 같이 처음 보는 사냥들을 반갑게 반길 정도니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라하니신데, 혼자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밖에도 못나가니까 요강 쓰고, 하루 종일 담배 피우고, 텔레비전 보고..다른 가족들도 들여다보지도 않는대요.”

그렇게 정서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들은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살고 있고, 늘 지나다니

는 삶의 공간에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 새삼 신기하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도 갖게된다.

“먼 세상 일이라고 생각했는데....내가 매일 다니는 길 한 켠에 세상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더니..”

“능 지나다보어도 그런 집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사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같은 길을 지나도 화려한 간판만 봤지 그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을 못 봤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들 보호시설에 가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 대상자를 보면서 학생들은 가엾음, 답답함, 착잡함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누워 있거나 자식들과 교류마저 소원한 노인들의 가엾기도 하다.

“허름한 집에.. 러도 어둡고.. 크게 부르니까 겨우 대답해요.. 그런 할머니께서 어두운 방안에 혼자서 누워 계신데. 정말 맘이 착잡했어요.”

“미래에 나도 혹시 저절지는 않을까 딱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찮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낯의 일도 아니고 참.. 그대요.”

또한 대상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차가운 방에서 이불 한 장 깔고 누워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고, 모두가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에 비해 자신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다는 안타까움도 있다.

“몸이 움직이기 힘들니까 약도 혼자서는 제대로 못먹어요. 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모두 너무 티습고,..”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너무 딱딱하고 나의 힘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대상자와의 접촉은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선입견을 깨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치매나 간질환자, 장애인에 대해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느낌, 막연한 두려움 등은 실제로 편견이었음을 자각한다.

“치매?... 문이 열리는데 약간 무서웠거든요. 마치

정신이상이 같을 것 같아서요... 근데 실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요..”

“가까이 가서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좀 무서웠어요. 근대도 억지로 웃으면서 손을 잡았는데... 근대 따뜻했어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거...따뜻한거 있죠.”

## 2. 방문간호 사업 경험

학생들의 방문간호사 활동경험에는 부정적, 긍정적 면이 모두 포함되어있었다.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강한 정서적 교류와 다양한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모습은 방문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긍정적 경험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방문시간, 비전문적이고 제한적인 간호실무는 실망스럽다.

### 주제모음3. 방문간호사의 긍정적 역할모델 수행

방문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체험에는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류, 다양한 직접간호의 수행이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상자들과의 정서적 교류이다. 방문간호사는 대상자들과 가족처럼 친하며, 진정으로 대상자를 걱정하고 있었다. 병원과는 달리 방문간호사들은 오랜동안 인연을 맺다보니 그들의 근심, 걱정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런 인간관계를 토대로 방문간호사들은 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는 마치 가족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뉘가며 즐거이 방문을 수행한다. 질문에도 하나하나 대답해 주고, 불편사항들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 뿐만 아니라 집안 주위 환경이나 대상자 외의 다른 가족들까지도 하나하나 신경 쓴다. 이런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너무 보기좋게 비치고 매우 신선하고 놀랍다.

“정말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싶었어요.. 꼭 딸 같애요.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보건소하면 권위적인 것..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처럼 부드럽게 태도가 보기 좋더라고요.”

“한걸 한 걸 환해요. 모든 걸 다 아는거죠. 그리고 한 분 한 분한테 애정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방문간호사들도 역시 자신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문 예정이 아닌 대상자가 전화를 하자 바

쁜 와중에서도 들리고, 집이 비어있는 경우는 자신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긴다.

“문에 메모해서 붙여요. 이 본등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찾아왔다는 것밖으로도 좋아하고.. 안왔었구나하면 섭섭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왔다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대상자들 역시 방문간호 선생님을 무척 좋아한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만난 딸, 손주 마냥 반기며, 어마어마한 치료도 아닌 혈당과 혈압을 재는 간단한 것에도 무척하게 고마워하시고 주의를 기울인다. 자식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들을 이렇게 약도 챙겨주고 말을 걸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이다.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도 고마운지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반복한다.

“고맙다, 고맙다 그러시며... 냉장고등 여더니 장아찌 이렇게 주세요.”

“선생님과 할머니 주변, 닭고 정리 조금 해 드렸어요. 자식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해준다고, 고맙다고, 옥먹이세요.”

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상자들에게 있어 방문은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무기력한 삶의 활력소이며 더 나아가 가족 전체에 힘을 주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방문간호사가 무엇보다도 자그마한 관심이라도 갖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다.

“얘기 들어주고 그러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제른 며느리, 할아버지한테도 너무 잘 해주시는거예요. 할머니 깨끗하게 잘 돌본다고, 혼부라고 칭찬도 하고. 며느리가 착하기도 하고, 티게 좋아하죠. 자기 말 알아주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그 사자들도 힘이 되고...”

“말은 잘 못해도,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볼 때만 그렇게 웃는데요.. 가정방문이란게 희망을 주는 거... 무기력한 사람에게 주는 활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간단한 간호행위일지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사람의 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방문간호사가 혼자서 그 많은 집들을 감당하기는 무척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보람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정서적 교류 외에 방문간호사는 다양한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돌봄에는 단순한 신체적 돌봄이나 일상생활 관리부터 투약관리, 건강교육, 질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관리, 환경관리, 지지자원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뇨인데. 발 관리를 잘해야하잖아요. 너무 안 잘라서 발톱이 이렇게 길어서, 긁어지고, 새까맣고, 거의 손가락 굵기예요. 그 것을 정성스럽게 깎아주는데 참 칭찬더라고요.”

“덥고, 건조하고.. 마추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이러면 갖기에 잘 걸린다고 환기시켜야 된다고 창문을 열었어요.”

“근육이 요렇게 굳었는데 팔, 다리운동은 한참 해 주었어요. 림프잖아요. 그렇지않 정말 뭐라 할 수 없게 가슴이 벅찬거예요.”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본인이 알고있는 교회와 연락해서, 자원봉사자가 오게 했어요”

“약 드셨는지 챙기고, 부작용 없는지 물어보고, 계속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치매 할아버지인데 처음에는 방에서 웅크리고있고, 밖에도 잘 안나가셨데요. 그런데 자신감도 생기고, 말씀도 잘 하신데요. 참 이런 도움이 한 사람의 삶을 180° 바꿔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방문간호사의 활동을 체험하면서 학생들은 방문간호의 역할을 점차 피부로 실감한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간호사의 역할 속에서 모든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방문간호의 의미를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노인 본등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같아요.. 너무 값진 경험이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생보다 간호사가 할 일이 더 많고,.. 자기 소신이 있고 또 잘해 보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장간 사이에 그 큰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지만 보건소 사업 중 제일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보건소 업무중 방문간호가 꽃이에

요. 보건소 실습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한 이렇게 의미있는 방문간호를 직접 담당하는 간호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며, 자질과 실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게 처음 접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멀음도 쫓아하고, 그런 게 다 간호사에게 달린 거니까..”

“바쁜 환경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해요..”

“간직, 치매..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잖아요. 그게 아닌데... 편견을 가지면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하고, 성격도 적극적이어야 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내야 하고, 가능한 많은 도움을 주고, 다방면의 자질이 필요한 거죠..”

더불어서 필요한 것은 실력이다. 특히 방문간호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오면 사람은 뭐 목 어드요. 대담도 시원치 않고, 끈끈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르다고요.. 많이 알고 시원시원하게 잘 해준다고요.”

“방문간호사는 참 어렵고.. 간호는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 먹어야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하고, 여러 환자들을 다 혼자 처리하는 거니까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지요.”

#### 주제모음4: 부정적인 방문간호의 모습과 개선 방향

그러나 방문간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크다. 방문 시간이 너무나 짧고, 간호행위가 비전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다.

먼저 방문시간이 매우 짧다. 학생은 적어도 몇 십분은 머물러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순간 선생님은 혈압을 재자마자 자리를 뜬다. 그리고는 거의 뛰다시피 다음 집으로 향한다. 또 다른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학생은 너무 이쉽기도 하고, 왜 그렇게 급한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할 일을 다 못한 거라고 하니... 정말 너무나 바쁘게 다녀요.”

“오전만 8~9집을 다녀는데,, 이야기도 거의 못하고 할 양만 재고 나오는 식이었어요,”

“하루 여러 집을 다녀서 정신이 없었어요.”

“재빠르게 건강이 어떠냐, 병일 없냐.. 물고, 약주고 군방 나락버려요,, 한편으로는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차츰 현실이 이해가 됐다. 담당 가구수가 많고, 방문 집 간의 거리도 멀고 도로사정도 좋지 않아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실제 간호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루종일 분주하게 다녀지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바쁘고 걸치레만 한 것 같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비전문적이다. 간호행위가 학생들의 눈에도 너무 허술하였고 정해진 방법으로 체계적인 제공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혈압과 당 수치 체크하고 약을 주는 똑같은 일, 일반인들도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태반으로 무언가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이 없었다. 질병에 대해서도 누구나 말하는 있는 내용만을 말하는 것 같다. 또한 매번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간호형태에 대해 과연 이런 식의 방문간호가 실제 도움이 될까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너무 전문성이 없어요. 임득이 다 일반인도 조금 교육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투석환자였는데, 동맥액혈관을 좀 봐야할 것 같은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나오는 바깥에...”

간호행위의 비전문성은 제한적인 업무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방문대상자의 주 건강문제가 당뇨와 고혈압이기는 하였지만,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전인적인 관심은 보이지 않았고, 또 가족문제에 대해 해결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실망스러운 점이 되었다.

“너무나 책임적이니까. 왜 저것뿐이 해주지 않나? 병이 당뇨와 고혈압밖에 존재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녀딸이 인생을 자포자기한 듯한 아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거지근성이 가득한 아이라며 지도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간호라는 개념이 없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 역시 간호사를 약 갖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물품을 더 반기는 것을 보면서 간호학생들은 섭섭함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간호사를 ‘약 갖다 주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어떤 분은 설명은 안 듣고 약이나 더 달라고 그러기도 해요.”

“파스나 감기약 줘 때 제일 좋아해요. 손직히 식빵스럽기도 했어요. 왜 저러나 섭섭하기도 했고,”

학생들은 방문간호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간호내용의 증가 외에 사업내용이 좀 더 전문화되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하며 관리대상 질환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에서 다른 직종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전문직의 위상이 확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적 사업을 위한 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가정방문 기록지 개선, 방문 전 확인, 방문 전 순서 정하기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의사의 방문도 체계적으로 요구에 맞게 행해져야 하며, 병원이나 자선단체 등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직한 별로 함께 많은 것 같거든요. 또 그래야 정말 사업이 제대로 되고, 합병증도 예방하고요.”

“대부분 고혈압, 당뇨, 관절염만 생각하는데. 가정 약 한자도 많잖아요. 그 영역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치매환자 집인데 돌아가셨대요. 미리 확인했으면, 시간 적약을 했을텐데 싶었어요. 또 한 집도 할머니가 없어서 허탕을 쳤어요. 아무리 혼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해 잘 나가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으로 연락은 주고 방문을 해야 옳은 것 같아요.”

“의사가 자주 방문해야 처방 같은 것도 한자 상태에 즉각 맞게 될 거고.. 병원라도 서로 연결이 되어 필요하면 급방 입원시키고요.”

“할머니가 뇌졸중이고..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왜 의문론 친대 그런 거 빌릴 수 있다면, 목장에도 좋고, 간호하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백내장이어서 보건소 가겠다고 그러세요.. 선생님어 보건소 말고 병원에 가시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때 실제로 어디를 정해서 가까운 곳으로 안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확충이었다. 현재로는 간호사의 업무부담이 과다하다. 담당구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거동불편환자,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정말 많은 수의 환자를 담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무리이다.

“이 말한 두꺼운 장부에 뽀뽀 이흠등이 적혀 있어요.. 내가 놓라니까 웃으시는 거 있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놓랬어요. 이런 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구나 싶었구요..”

### 3. 개인적 체험 및 점서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한계와 동시에 보람을 느꼈으며 짧은 만남에 대해 아쉬움과 미안한 감정도 표출하였다. 그러나 방문간호 경험은 자아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아성장에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간호학도로서의 자세 정립, 자아 성찰, 가족의 소중함 깨달음이 포함되었다.

#### 주제모음5: 학생으로서의 체험

학생들의 실습체험에는 한계와 보람, 짧은 만남으로 인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포함되어있다.

한계는 뭔가 해 주고는 싶지만 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더 나아가 경험의 부족이나 가치관의 미성립으로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생긴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아는 게 참 없구나 하는 전이었어요.. 할 건 많은 것 같은데, 뭐 가늠 해주고 싶지만.. 뭐 해줘야 할지 모르고..”

“70세 넌은 할아버지인데 처음엔 딸썹도 안 하시더니 하루는 벼렸다는 듯이 번쩍 일어나서 딱 딸썹하시는 거예요. 숲이 차서 헛떡거리시면서요. 죽을까봐 너무 두렵대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무서운 때가 있다고요. 아..제가 너무 억부족인 거예요,..”

“할머니가 며느리 이야기하시다가 영영 우세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얘기하시는 것을 듣어드렸는데 좀 더 내가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아서 이럴 때 딱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나 학생들은 동시에 보람도 체험하고 있었다. 미약하나마 자신들이 할 수 것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긍정적인 느낌도 갖는다.

“역신히 할머니 관적운동도 시켜드리고 고행양엔 뭐가 좋아요.. 관적연엔 이젠 운동하세요.. 해드리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셨고.. 정말 기뻐요”

“자랑 생각해 보면 해 드릴 수 있는 건 많은 거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마사지도 해 드리고.. 병원과는 다르게 내 능력만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들이 대상자들에게 정서적 지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들의 방문이 대상자에게는 즐거움이었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한 것이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대상자들은 학생들에 대해 강한 정서적 유대를 표현하였다.

“방문하였을 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환한 후 한참만에 도착하였는데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이래서 계속 방문하는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면이라도 껌어먹고 가라며 번한 사정에 지깁에서 천원짜리씩 꺼내 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지으시는데... 많이 아팠어요.”

이렇듯 학생들은 자신의 도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의 종결은 아쉬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초래한다. 아쉬움은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이다.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전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끝나니까 이것 저것 아쉽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방문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단순히 실습을 위해서 혹은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인원을 맺고 끊는 인간관계가 대상자들에게 누가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인 것이다.

“재작년, 작년도도 학생들이 와서 잘 해주더니만 억매안 있어 연락도 끊기고 방문도 끊겼다고 그러세요. 우리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며칠 오다 가겠지.. 처음부터 별 기대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 전에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 속닥거리다가 봉사활동 학인 도장 찍어 달라고 했대요. 나도 그렇지 않나..”

주제모음6: 자아성장의 계기가 됨

마지막 주제모음은 자아성장의 계기가 된 가정방문이 다. 자아성장에는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간호학도로서의 자세 정립, 자아 성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음이 포함되어있다.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사회에 불쌍하고 소외 받은 노인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노인들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었다.

“노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지요. 다 어디 숨어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정방문하고 나니까 길거리에 왜 이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지, 예전에도 많았겠지만 그때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깝고 편하게 느껴져요.”

간호학도로서의 자세도 정립된다. 먼저 학생들은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지 알게 되면서 간호사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이 해보고자 하는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됨을 느낀다.

“가정방문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지를 알게 되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간호학도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진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간호사 상과 자신과의 괴리감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편견과 부족함을 반성하게 된다.



“치매 할머니인데 냄새가 너무 고약했어요. 너무 처승하고 부끄럽고..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피항 생각만 했으니,, 마음으로 웅얼어요. 제 스스로 식망감이 컸어요.”

“간직한자인데, 정상인거 똑같잖아요. 그래도 내가 간호학을 했으니까 조금은 낯들려 다르다 싶었는데.. 착각이었죠.”

앞으로 내가 간호사가 되려면 좀 더 마음이 유해지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맘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반성을 통해 앞으로 나 자신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가정방문 경험은 개인적인 자아성찰의 계기도 마련하였다. 그 동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거나 안이하게 살아온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앞으로 더 배우고 경험해야겠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인생에 대해 보다 여유로운 시각도 갖게 되었다. 나보다 백 배, 수천 배 힘든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아픈 사람을 대하는 것도 더 큰 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하는 것도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 동안 갇힌 세계에서 안이하게 살아왔다 싶어요. 그런데 수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여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은 대하면 이전보다 생각하

는 것도 깊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대상자들을 보면서 안쓰럽고 자식으로서 어떻게 저릴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그런 경험을 통해 자신은 부모님들이 늙어서도 절대로 외로워하시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중요한 지지요인임을 깨닫는다.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보면서 내내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식들이 참 무심하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

“평정부터 달라요. 버려진 노인은 의욕도 없고 굳어 있고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자식들이 잘해주면 달라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참 중요하디 싶지요”

### III. 논 의

간호학생들의 방문간호는 떨림, 두려움 혹은 걱정으로 시작된다. 두려움은 다른 임상실습에서도 나타나는 빈번한 정서적 반응이다. Beck(1993)에서 간호학생의 첫 임상 실습시 불안 염습이 나타났으며 Pagana(1988)도 첫 임상실습 시의 6가지 위협을 확인하였다. 임상실습에서의 구체적 불안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Kleehammer, 1990; Pagana, 1988),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름(Shin,1996)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able1> Participants' significant statements and researcher's created meanings

참여자의 의미있는 진술	연구자에 의해 형성된 의미
1. 너무 더럽거나 냄새나면 어찌지? 별별 생각이 머리 속을 빙빙 돌더라고요.	학생들은 가정방문에 앞서 익숙치 못한 대상자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이 든다
2.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쌓인 것이 많으셨던지 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은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외로운 상태로서 지지가 필요한 대상자임을 인식한다
3. 말은 잘 못해도,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울 때만 그렇게 웃는데요.. 가정방문이란게 희망을 주는 거... 무기력한 사람에게 주는 서적 지지임을 인식하게 된다. 활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방문간호사업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임을 인식하게 된다.
4. 잠깐 사이에 그 큰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싶지만 보건 소 사업 중 제일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방문간호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할머니가 며느리 이야기하시다가 영영 우세요. 당황해서 아무 말 실습과정에서 여러 상황에 부딪치면서, 학생으로서의 인식 및 능력의 도 못하고 그냥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드렸는데 좀 더 내가 아는 부족을 실감한다. 게 많고 경험이 많아서 이럴 때 딱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학생들은 방문간호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내가..할 일이 참 많다.. 앞으로 간호사가 될 나를 필요로 하는 사 방문간호 경험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간호사의 역할을 인 람들이 참 많다.. 더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로 많이 들더 지하고, 전공에 대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생각한다. 라구요.	학생들은 방문간호 경험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생각한다.
7. 절대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늙어서도 절대로 외로워하시게 자식들에게 소외된 대상자들을 경험함으로써, 효도에 대한 각오를 새 령게 하게 된다.	학생들은 방문간호 경험을 통해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생각한다.

낮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낯선 환경에서의 어색할 것 같은 예감, 더럽거나 냄새가 날 것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기존 임상실습 연구와는 구체적 불안 내용이 차이를 보인다. 물론 임상실습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안이 보이지만(Park & Lee, 1994) 중요 불안내용은 아니다. 이렇듯 부정적 정서 유발요인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 특히 지역실습은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외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Woo & Park, 1995) 낯선 환경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감정들과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습에 따른 정서적 반응에 대하여 파악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실습에서는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도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불안요인이면서 또한 기대요인이다. 또한 꿈꿔왔던 봉사의 기회,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렘 등이 기대감을 가져온다. 임상실습에서 기대감은 Shin(1996)의 연구에서만 언급되며, 그 외 연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학교보건실습에서는(Woo & Park, 1995) 기대감이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볼 때 지역실습이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 과목임을 보여준다.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가 섞여있다. 대상자에 대해 간호사가 강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점은 가장 큰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는 실제 방문간호 담당자들도 가장 긍정로 생각하는 요인이기도 하다(So & Shin, 1998). 또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직접간호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방문보건이야말로 정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방문간호의 현실적인 여건은 매우 어렵다. 조직, 행정적 측면에서는 예산지원 부족, 담당인력 부족, 실적 위주의 업무 평가, 병원 등 의료연계 미흡 등이(So & Shin, 1998) 장애 요인이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한계, 실무지식의 부족, 서비스 제공시간 부족 등 간호인력 상의 어려움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간호학생들은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임상실습은 실제 적용을 통해 살아있는 지식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전문 직업훈련으로서 중요한 교육(Sung, Jeong & Jang, 1998; Dunn and Hansford., 1996)이며 더 나아가 건강관리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 가치관과 태도까지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Elrich, 1967).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험의 내용이다. 긍정적 실습경험은 간호학생의 올바른 지각형성에 중요

한 요인이 된다(Dunn & Hansford, 1996). 그러나 불만족은 간호학생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자신을 전문직에 충실히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Peggy, 1984). 본 연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방문간호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들은 간호학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자신이 노력을 해야하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공에 대한 태도는 기존의 다른 임상실습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La(1987)은 간호학생들의 가치관 중 사회적 가치가 높은 반면 이윤적 가치는 낮다고 보고하였다. 간호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지지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박애, 인본주의, 봉사 중심적 이념을 중심으로 한 간호이념이 높게 지향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문직을 위한 노력에 부합되어야 할 이윤적 가치가 낮은 것은 간호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임상실습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이윤적 가치가 낮게 나타나 실습이 오히려 이윤적 가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La, 1987). Kim(1981)도 학생 90% 이상이 실습에서 불만족하며 실습에서의 갈등이 전공에 흥미를 잃게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 보면 학생들은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이는 곧 이윤적 가치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La, 1987). Shin(1996)에서도 학생들은 간호사 위치, 발전 가능성, 전문성 등 간호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나 혼란스러워 함을 한 경험범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Seo 등, 1996) 실습을 통해 성취감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결과는 언급되지않거나 혹은 전체 연구결과 중 비중이 극히 적다(Ko & Kim, 1994).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방문간호 경험이 간호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방문간호의 문제점을 간호사의 개인적 한계가 아닌 행정적, 정책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 Kim(1997)은 간호학생의 지역사회간호 실습 경험에 대한 유형 분석에서 학생의 태도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바 가장 다수를 점하는 유형은 지역사회 실습, 특히 가정방문을 가장 인상깊은 실습으로 평가하고 졸업 후 폭넓은 진로 선택의 동기가 부여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방문후의 긍정적 태도 결과와 일치한다.

또 하나의 실습경험은 학생 개인적인 자아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언

급된다. Ko 등(1994)에서도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 증진을 경험하였으며, Shin(1996) 역시 실습에서의 다양한 삶과 죽음과정에 대한 간접체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삶의 소중함을 인식함, 타인에 대한 이해, 고정된 편견 등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고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 자아 성장을 경험함을 보여준다. Kim(1997)에서도 자기책임 및 의미추구형으로 명명된 학생 군은 지역사회간호 실습이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도움이 됨을 강조했다. 즉,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저소득층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들에 대한 역할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지역사회실습은 지식이나 개념의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호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그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자세를 바로 갖도록 이끌어주는(Kim, Hong, Yoon & Son, 1992) 규범을 촉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의 출신배경인 지역사회를 체험하는 것은 장차 간호 실무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교육의 효과 측정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측면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과평가지 구체적으로 실습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지역사회 실습은 지역의 보건의료현실을 파악하고, 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해하게 하며,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질병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임상실습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간호학도 높은 실천 지향적 과목이므로 강의를 통해 함양된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아야 본연의 교과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의 환경, 특히 현장의 간호인력이 교육적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학습분위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Barr, 1980). 지역간호학의 경우 실습현장에서 실무자가 위임받는 부분이 크고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실습을 통제하는 부분은 적어 자칫 실습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실무진과 학교간의 협의는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실습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방문간호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도록 실습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방문간호 경험의 구조와 본질을 밝히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보건소 실습을 마친 간호대학 3학년생으로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총 17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였으며, 개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방법은 Colaizzi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6개의 주제모음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정방문을 시작하면서 갖는 감정은 떨림, 두려움 혹은 걱정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간호학생들은 방문대상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정서적으로 소외되어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었음을 깨닫는다. 대상자들에 대해 간호학생들은 답답함, 가엾음, 착잡함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편 잘못된 선입견도 버리는 계기가 된다. 학생들은 방문간호사업 중에 방문간호사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긍정적 경험을 모두 하게 된다. 긍정적 경험에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 간호사가 단독으로 다양한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 모습을 보면서 방문간호와 방문간호사의 의미를 새삼 인식한다.

그러나 방문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간호활동이 비전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정적인 경험이다. 따라서 방문간호사업에는 여러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있음을 학생들은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자신들의 한계와 동시에 보람을 느꼈으며, 한정된 시간내의 짧은 만남이라는 점에 대해 대상자에 대해 아쉬움과 미안한 감정도 표출하였다. 그러나 방문간호 경험은 자아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아성장에는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간호학도로서의 자세 정립, 자아 성찰, 가족의 소중함 깨달음이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건소 방문간호 실습에 대해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실습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실습 장에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실습 지도과정에 활용하고, 실무진이 교육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학교와 실무진과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 협동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 교과 교육효과 평가에는 지식 외에 다양한 평가지표가 포함되도록 고려해야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간호 실습은 다양하며 분야별로 각기 독특하므로 각 실습 영역별 학생의 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rr, F. (1980). Are your students positive about their experience about their experience in the clinical area. *Can Nurse*, 76(10), 48-50.
- Beck, C. T. (1993).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 a phenomenological study. *Int. J Nurs*, 30(6), 489-497.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Dunn, S. V., Hansford, B. (1996).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 Adv Nurs*, 25, 1299-1306.
- Elrich, H. (1967). The clinical education of the medical students. *J of medical Education*, 42.
- Kim, I. S. (1997). A Q-Methodological Study on the Community Nursing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Comm Nurs*, 8(1), 133-143.
- Kim, E. S. (1981). Preparation of Students for Future Challenge . *The Korean Nurse*, 20(4), 50-59.
- Kim, J. R., Hong, D. Y., Yoon, H. R. & Son, J. O. (1992). A Questionnaire Survey on Trial for Community Medicine Field Training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4(2), 69-78.
- Kleehammer, K., Hart, A. L., Keck, J. F. (199).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 Nurs Educ*, 29(4), 183-187.
- Ko, S. H., Kim, K. M. (1994).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Nurse*, 33(2), 59-71.
- La, H. O. (1987). A Study on the Value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Settings . *The Korean Nurse*, 26(5), 69-80.
- Lee, S. E. (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 Academy Sociality of Nursing Education*, 7(2), 333-348
- Mahat, G. (1996). Stress and coping : First-year Nepalese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settings. *J Nurs Educ*, 35(4), 163-169.
- Moon, M. S. (1998).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Sociality of Nursing Education*, 4(1), 15-27.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 Nurs Sci*, January, 49-63.
- Pagana, K. D. (1988). Stresses and threats reported by baccalaureate students in relation to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 Nurs Educ*, 27(9), 418-424.
- Park, M. Y., & Kim, S. I. (2000).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 Academy Sociality of Nursing Education*, 6(1), 23-35.
- Park, C. J., & Lee, K. H. (1994). A Study on the percept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in the First Clinical. *J Korean Fund Nurs*, 1(2), 149-164.
- Peggy, J. W. (1984). Increasing self esteem through self evaluation. *J Nurs Educ*, 23(2), 78-80.
- Shin, K. R. (1996). The effective approache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The Korean Nurse*, 32(5), 93-105.
- Shin, K. R. (1996).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Adult Nurs*, 8(1), 156-168.
- So, A. Y., & Shin, E. Y. (1998).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Visiting Nurses of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J Korean Comm Nurs*, 9(2), 262-279.
- Sobel, E. G. (1978). Self-actualization and

-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response to stress. *Nursing research*, 29(4), 352-360.
- Suh, M, S., Kim, M, H., & Chon, M, Y. (1996).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J Korean Fund Nurs*, 3(1), 128-139.
- Sung, M, S., Jeong, G, H., & Jang, H, J. (1998). Development of Clinical evaluation tool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Sociality of Nursing Education*, 4(2), 172-186.
- Woo, S, H., & Park, Y, S. (1995). The Phenomenological Study of School health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Comm Nurs*, 6(2), 161-172.
- Yoon, S, N., & Park, S, A. (1996). A Comparison of Outcomes of Visiting Nursing Service by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Health Centers. *J Korean Comm Nurs*, 7(1), 5-17.

- Abstract -

##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in Public Health Center

Oh, JinJoo\*

**Purpose:** 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on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as a community nursing practice. **Method:**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subjective experiences of 17 nursing students.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laizzi's method in which meaningful statements were extracted and these were

clustered into 6 themes. **Result:** The nursing students started practice with anxiety and expectation at the same time. They were frightened at the clients' inferior environment and their level of loneliness. They also felt pity and experienced complicated feelings for the clients. However, the home visiting practice was a chance for them to discard prejudice on the clients. Positive experiences on visiting nursing practice reported by the nursing students included lively interactions between nurses and the clients, and variable provision of primary nursing care. However, facts such as much limited visiting time, non-professional and limited scope of practice were reported as negative experiences. They felt both worthiness of the home visit service and restricted self-capability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practice. They also felt sorry for the clients because the home visit services were carried out during limited time period. Regardless of this, the home visit experience provided them an opportunity of self-growth. This self-growth includes increased awareness of issues for elderly, building of self-identity as a nursing student, self-reflection, and realization of the value of family. **Conclusion:** This study may provide data for better understanding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s. However, more study on the barriers of their community health practice is needed in the future. Moreover, it is needed to establish desirable practice environment through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versity and staffs in the public health center.

**Key words :** Nursing student,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 Phenomenolog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